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

How Will a Consumer Sentiment Index on Unsafe Imported Foods Affect
Willingness-to-Pay More for Local Foods and Satisfaction with Level on Dietary Life?

– Focusing on Agricultural, Fishery, and Livestock Products –

Sang Min Jun*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Hoseo University, 12 Hoseodae-gil, Dongnam-gu, Cheonan,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a consumer sentiment index on unsafe imported foods influences willingness-to-pay more for local foods and satisfaction with dietary life. The study also investigates the moderating role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 the above-mentioned relationship. Using food consumption research conduct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this study shows that a consumer sentiment index on unsafe imported foods positively affects willingness-to-pay more for local foods, and this in turn positively influences satisfaction with dietary life. A consumer sentiment index on unsafe imported foods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satisfaction with dietary life, and the mediating role of willingness-to-pay more for local foods was fully supported. No socio-demographic variables moderate significa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x information and willingness-to-pay more for local foods. Only age significant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willingness-to-pay more for local foods and satisfaction with dietary life. The results provide useful data for safety supervision concerning imported foods, enhancement of competition in the local food industry, and safety education for consumers.

* Tel. +82-41-560-8378. E-mail. smjun@hoseo.edu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Apr. 20, 2015 / Revised: May. 29, 2015 / Accepted: June. 2, 2015

Key words: consumer sentiment index on unsafe imported foods, willingness-to-pay more for local foods, satisfaction with dietary life

국문초록

본 연구는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와 식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그 영향력에 대한 소비자의 사회인구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설검정 결과,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는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는 식생활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단,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아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가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와 식생활 만족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 →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에 대한 연령대와 성별, 소득, 학력 수준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 → 식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연령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국산식품의 경쟁력 강화 방안, 소비자 안전교육방안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 식생활 만족도

1. 서론

소비자가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하면, 수입식품보다 고가인 국산식품을 구입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수입식품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떨어진 식생활 만족도는 국산식품 구매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까? 수입식품의 불안전성에 대하여 우려와 불안이 큰 소비자라면, 혹은 고가의 국산식품을 구입할 경제력을 갖춘 소비자라면 국산식품이 수입식품보다 비싸더라도 지불의도가 높을 것이다. 반면, 수입식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 안전한 수입식품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거나, 국산식품의 불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있다면 고가의 국산식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식품안전 지식이 풍부하거나 안전대처능력이 뛰어난 소비자는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로 인해 떨어진 소비자 만족도를 국산식품 구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고가의 국산식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는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수입식품을 구매할 기회를 상실하거나, 고가의 국산식품을 구매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입식품 불안전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된 위해도보다 소비자의 주관적인 체감도가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더 큰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수입식품과 국산식품의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진현정 외, 2014; Jin, 2008). 따라서 소비자의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를 이해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행동과 만족도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소비자 행동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차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처럼 소비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생활 안전 분야와 식품 소비자정책이 식품안전이고(전상민·최은실, 2014; 진현정 외, 2014; 최정숙 외, 200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9),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증가와 쌀 관세화 등으로 인해 수입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전체감도와 대응행동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 수입건수는 2014년 기준, 554,182 건으로 2004년(329,644건) 대비 68.1% 증가하였고, 식품 수입금액은 2014년 기준으로 274억불로 2004년(97억불) 대비 182.4%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입식품의 양적 확대와 상반되게 소비자의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사고, 중국의 농약검출, 미국의 광우병 파동 등 각종 국제적 안전사고로 인해 매우 높다. 수입식품의 불안전성이 가장 극대화된 부문은 농수축산물이다. 이원준·이태민(2013)은 수입식품의 형태가 과거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 위주였다가 최근 농식품 등 신선상품 형태라고 밝히면서 그 수입규모가 급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크다고 하였다. 더욱이 농수축산물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요리하거나 섭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공식품의 원재료로도 사용되어 실제 활용 빈도가 높아 안전성 확보는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농수축산물의 국제화로 인하여 수입식품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식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의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수입식품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시도되어 왔다. 식품의 안전성은 대표적인 식품의 지각품질 요인 중 하나로서 이미 수입식품의 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평가 수준은 수차례 제시되었다. 다만, 향후 수입식품의 안전위험이 점차적으로 커진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의 인식, 태도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구매행동과 구매행동 후 만족도 등 구매의사결정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수입식품의 안전체감도 수준이나 영향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전체감도가 구매행동과 구매 후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류미현·이승신, 2013).

이에 본 연구는 아래의 여러 이슈들을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논하고자 한다. 수입식품의 불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소비자는 국산식품을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구입할 것인가? 만약, 국산식품을 구입한다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가 상쇄되어 식생활 만족도는 높아질 것인가?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른 영향력 차이는 유의할 것인가?

본 연구는 아래의 주요 연구목표를 설정한다. 첫째,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가 국산식품의 추가 지불의도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로 설정하여 검증한다. 둘째,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가 식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로 인한 식생활 불만족이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로 인해 상쇄되는지 파악하여 국산식품의 추가 지불의도의 매개효과가 완전매개인지 부분매개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어떠한 사회인구적 특성을 가진 소비자가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높을 경우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가 높으며, 국산식품 구매로 인하여 식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의 가장 대표적 사회인구적 변수인 연령대, 성별, 소득수준, 학력수준이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 →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

→ 식생활 만족도의 각 경로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국산식품의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식품소비자 안전교육방안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및 가설설정

1.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 개념 및 수준

전통적으로 소비자체감도(consumer sentiment index)는 어떠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 또는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 Curtain(1973)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태도지수로 제시한 이후 정책 변화와 제품 및 유통환경, 식품안전문제에 적용되었다(Chuenpagdee, *et. al.*, 2006; Gaski and Etsel, 1986; Kinsey, *et. al.*, 2009). 국내에서는 식품분야에 적용되어 몇몇 연구에서 소개되었다(유현정·주소현, 2012, 2014; 진현정 외,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진현정 외(2014)는 식품안전체감도를 식품안전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정의하고, 수입식품 안전체감도를 곡류와 채소류, 과일류,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 임산물로 구분하여 ‘전혀 안전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안전하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유현정·주소현(2012)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소비자안전체감도는 주관적인 소비자의 인식수준으로 식품전문가들이 말하는 식품위해, 위협의 수준과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식품 전문가들은 객관적 차원에서 피해의 정도와 발생률의 결과물(예: 사망률, 질병발생률, 재산피해 등)로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를 이해하는데 비해 소비자는 실제 피해 규모보다 더 확대해석하기도 하고, 개인적 경험이나 언론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윤여임, 2014; 한태학, 1998).

실제로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전체감도 수준은 매우 높다. 수입농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소비자가 수입식품 안전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소비자시민모임, 2012; 최세현 외, 2011). 최세현 외(2011)는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만족도에 대하여 부정적 혹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1.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고, 진현정 외(2014)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안전체감도는 100점 만점에 48.34점으로 국산식품의 70.44점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약사용량과 가축 질병, 식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2010년 대비 2012년에 모두 증가하였고(송보경 외, 2012), 소비자가 수입식품이 불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미흡과 수입업체의 안전의식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는 식품의 원재료인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분석되었다. 이용학 외(2012)는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가 품질 및 안전성 확인의 주요 단서가 된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물, 중국 농산물, 미국이나 유럽의 축산물 등 수입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소비자의 근원적 불안은 정책적, 교육적 차원에서도 가장 시급

히 해소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수입 농수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가공식품 등 일반 수입식품과 수입식품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아 본 연구는 수입식품 농수축산물에 초점을 맞추어 수입식품의 불안전성을 다루고자 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의 불안전체감도가 소비자 행동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와 소비자 행동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은 식품의 원산지 효과에 기인한다. Scholer(1965)가 섬유와 주스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이후, 많은 연구들은 제품의 원산지가 품질 평가의 주요 단서가 된다고 보고하였다(Han & Terpstra, 1988; Hong & Wyer, 1990). 즉, 소비자는 원산지나 제조국의 이미지를 제품을 평가하는 대리적 단서로 활용하며, 이 때 인지된 위험도에 따라 태도와 구매 의도를 결정한다(Bilkey & Nes, 1982; Huber & Cann, 1982). 실제로 소비자는 식품의 정확한 품질 파악이 어려워 원산지를 가장 중요한 단서로 사용하여 제품을 선택한다(류미현·이승신, 2013; 서경미, 2008; 이용학 외, 2012).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궁극적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데, 류미현·이승신(2013)은 수입식품 안전인식이 중국 수입식품 구매의도에 대하여 가장 큰 총인과적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용학 외(2012)는 식품의 생산지 고려도가 안전성 고려도에 영향을 미쳐 지각된 위험과 브랜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Bawa(2004)는 수입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주요 심리적 요인 중에 원산지 효과가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임교석 외(2008)는 고가의 국산 쌀에 대한 구매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안전성과 품질요인, 브랜드원산지 등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전영호(2009)는 미국산 쇠고기의 구매평가와 구매의도에 원산지 이미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대한상공회의소(2013)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주부소비자가 국산식품에 대한 구입의도가 높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소비자는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높을수록 식품안전정보를 요구하는 등 식품 안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김성숙, 2007; Shim, *et al.*, 2011). 즉, 수입식품의 불안전성에 대한 강한 체감은 행동 유발적 요소로 작용하여 식품안전 추구행동을 이끌어낸다(유현정·주소현, 2014). 수입유기농산물 구입의도의 영향요인을 프로빗 모형분석을 통해 검증한 한재환·정학균(2014)에 따르면,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할 경우 수입유기농산물 구입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최세현 외(2011)는 중국산 유기농 포장두부의 구입의도가 14.29%로, 유기농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산 일반포장두부의 구입의도(85.8%)보다 매우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이들은 중국산 수입식품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식품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가격 이외의 요인에 있어서의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밝혔다(최세현 외, 2011). 유현정과 주소현(2012)은 식품안전지향행동의 구조 모형 분석에서 식품위해 우려도와 불안도가 식품안전행동과 식품상태 확인행동 등 소비자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수입 농식물에 대한 20대 소비자의 태도를 질적 자료와 근거이론을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한 이원준·이태민(2013)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안전욕구 영역은 수입 농식품의 품질과 관련된 부분으로 소비자가 수입 농산물의 저렴한 가격과 함께 매우 자주 언급한 하위 요인이고, 특히 심리적 영역에서는 가장 빈번한 영역이었다. 이는 농약과 방부제의 과다한 사용에 대한 우려로 농작물의 재배와 운송 과정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과거와 비교하여 수입 농식품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었다고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수입 농식품을 국산보다 안전하지 않고 신선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이원준·이태민, 2013).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와 관련된 소비자 행동으로는 국산식품 구입과 가격보다 안전을 고려하는 행동을 들 수 있다(김규동·이정윤, 2010; 남희정·김영순, 2006).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로 인한 국산식품 구매행동을 분석함에 있어 수입식품보다 국산식품이 고가라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매 후 만족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는 국산식품이 수입식품보다 고가라고 하더라도 지불의도를 높이고, 국산식품을 구입함으로써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로 인한 소비자 만족도 저하가 회복된다고 가정한다. 이 때, 국산식품의 추가 지불의도는 국산식품이 수입식품보다 고가일 때의 지불의도로 규정한다. 수입식품을 구입하는 주 이유가 국산식품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것이 일관된 선행연구결과이고, 국산식품 구매 결정 시, 수입식품보다 고가일 경우라 할지라도 지불할 의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실제 시장상황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전체감도가 식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국산식품을 구매함으로써 식생활 만족도를 회복하거나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는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는 식생활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는 식생활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소비자의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른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와 소비자 행동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와 이로 인한 소비자행동의 변화는 소비자의 사회인구적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고가의 국산 쌀의 주 소비자층은 고품질을 추구하는 중소득층 이상인 것으로 예측되어(임교석 외, 2008), 소득수준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불안전체감도로 인한 고가의 국산식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소비자 특성에 따른 식품 불안전체감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등의 사회인구적 변수에 주목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사회인구적 특성이 식품위해에 대한 지식이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및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Taylor, *et. al.*, 2012; Worsley & Scott, 2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식품위해에 대하여 더 불안해하고,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식품위해요인과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보다 안전한 대체식품을 구입할 능력이 있어 불안 수준이 낮다고 보고되었다 (Dosman, *et. al.*, 2001; Smith & Riethmuller, 2000; Wang, *et. al.*, 2013). 한재환·정학균(2014)는 소비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산 유기농산물 구입의향이 높아진다고 밝히면서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소비자는 건전한 정보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가 국산식품 지불 및 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소비자의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른 차이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고, 몇몇 연구는 소비자의 사회인구적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장민선 외(2009)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대응행동으로 무조건 먹지 않는 경우와 내용 확인 후 결정한다는 신중한 경우로 양분되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50대 이상이 20~40대에 비해, 중졸 이하가,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에 비해 무조건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유현정·주소연(2014)은 여성과 고소득층, 기혼의 경우 식품안전 역량지수가 높다고 하면서, 연령이나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다. 진현정 외(2014)의 연구결과에서는 식품안전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연령과 성별, 교육정도와 소득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거주지역과 표시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식품안전정책 만족도, 규칙적인 운동이 유의한 변수로 제시되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구매의도에 성별과 연령, 소득,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유명순·주영기, 2013).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의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가 구매행동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유의한지 검정하고, 그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 → 국산식품의 추가 지불의도 → 식생활 만족도의 각 경로에 대한 사회인구적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또한, 상기 제시한 일반적인 선행연구(유현정·주소연, 2014; 한재환·정학균, 2014; Taylor, *et. al.*, 2012; Wang, *et. al.*, 2013)를 종합하여 고연령층과 여성, 저학력층이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로 인한 불안감이 커서 국산식품의 추가 지불의도가 높고, 국산식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만족도가 유지되거나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단, 고소득층의 경우, 고가의 국산식품 구입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는 높지만,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국산식품 구매로 인한 만족도 향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아래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1. 고연령층이 저연령층에 비하여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가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더 클 것이다.

가설4-2. 고연령층이 저연령층에 비하여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

가설5-1.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가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더 클 것이다.

가설5-2.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

가설6-1.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가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더 작을 것이다.

가설6-2.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

가설7-1. 저학력층이 고학력층에 비하여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가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더 클 것이다.

가설7-2. 저학력층이 고학력층에 비하여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

III.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1.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http://foodsurvey.krei.re.kr>)의 2013년 식품소비행태조사(국가통계 승인번호 41601)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3년 식품소비행태조사는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의 가구명부를 표집틀로 하여 만 13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6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을 표본층 선택에 반영하여 층화추출법을 통해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5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이다.

본 연구는 성인 가구원 5194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적·경제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3.06세이고, 남성이 41.6%이었다. 최종학력은 중졸이하가 36.3%로 가장 많고, 대졸은 28.2%이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 이상~300만 미만이 18.8%로 가장 많고, 주부(29.8%)와 자영업/경영자(17.3%)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적·경제적 특성(N=5194)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연령대 (M=53.06) (SD=17.41)	만 19~29세 이하	468(9.0)	성별	남	2160(41.6)	
	30~39세	888(17.1)		여	3034(58.4)	
	40~49세	943(18.2)	거주 지역	서울	670(12.9)	
	50~59세	919(17.7)		인천경기	949(18.3)	
	60~69세	797(15.3)		부산울산경남	869(16.7)	
	70세 이상	1179(22.7)		대구경북	567(10.9)	
최종학력	중졸이하	1887(36.3)		대전충청	819(15.8)	
	고졸/대재	1686(32.5)		광주전라	807(15.6)	
	대졸	1466(28.2)		강원	349(6.7)	
	대졸이상	152(2.9)		제주	164(3.2)	
월평균 가계소득	99만 미만	1098(21.1)		직업	자영업/경영자	901(17.3)
	100~200만 미만	891(17.2)			사무직/공무원	748(14.4)
	200~300만 미만	977(18.8)	기능/작업직/생산직		735(14.2)	
	300~400만 미만	865(16.7)	학생		191(3.6)	
	400~500만 미만	582(11.2)	주부		1547(29.8)	
	500~600만 미만	439(8.5)	무직		611(11.8)	
	600만 이상	327(6.3)	기타		461(8.9)	
총합	5194(100.0)					

사회인구적·경제적 변수들 중, 조절효과 관련 가설 검정을 위하여 사용된 변수는 연령대와 성별, 월평균 가계소득과 최종학력이고, 조절효과 검정을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류미현·이승신, 2013)를 참고하여 연령대는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으로, 성별은 남녀로, 월평균 가계소득은 400만 원 미만과 400만 원 이상으로,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2. 측정도구와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외생변수인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는 농산물 3종류(곡류 등), 축산물 4종류(미국산 육류 등), 수산물 3종류(일본산 수산물)의 총 10종의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체감 정도를 역코딩하여 구성되었고, 모든 유형에서 5점 만점에 3점을 넘어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는 높았다($\alpha=0.919$, 5점 리커트 척도). 그 중, 수입 수산물의 불안전체감도가 높았는데, 특히, 중국산 수산물의 불안전성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높았다.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는 국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지불의도가 수입식품을 100으로 기준으로 얼마나 높은지에 대하여 측정하였고($\alpha=0.961$, 5점 리커트 척도), 국산 수산물에 대한 추가 지불의도($M=123.76$)가 가장 높았다. 상기 두 변수의 구성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가능한 수준이고($\chi^2(8)=50.293$, $p<.001$, CFI=0.998, TLI=0.995,

RMSEA=0.032), 요인적재량은 모두 0.6 이상으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내생변수인 식생활 만족도는 단일변수로 측정되었고,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3.5, SD=0.66, 5점 리커트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구성 및 상세 내용은 아래 제시한 <표 2>와 같다. 가설검정을 위하여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조절효과 검정을 위한 다집단분석을 수행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Win Ver. 20과 AMOS Ver. 16을 사용하였다.

<표 2> 측정도구 요약 및 기술통계

변수	상세 문항(5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요인적재량	α
수입 농수축산물의 불안전체감도 (5점만점)	농산물 M=3.49 SD=0.66	곡류	3.50(0.72)	0.696***	0.919
		채소류	3.57(0.74)		
		과일류	3.39(0.75)		
	축산물 M=3.59 SD=0.65	육류(미국산)	3.68(0.74)	0.878***	
		육류(호주, 뉴질랜드산)	3.42(0.77)		
		육류(유럽산)	3.66(0.72)		
		육류(남미산)	3.93(0.78)		
	수산물 M=3.87 SD=0.62	수산물(일본산)	3.93(0.78)	0.803***	
		수산물(중국산)	4.05(0.72)		
수산물(유럽산)		3.62(0.72)			
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추가 지불의도 (수입식품 가격-100으로 가정)	농산물		122.11(31.02)	0.927***	0.961
	축산물		122.07(30.28)	0.931***	
	수산물		123.76(32.15)	0.978***	
식생활 만족도	현재의 식생활에 만족한다.		3.50(0.6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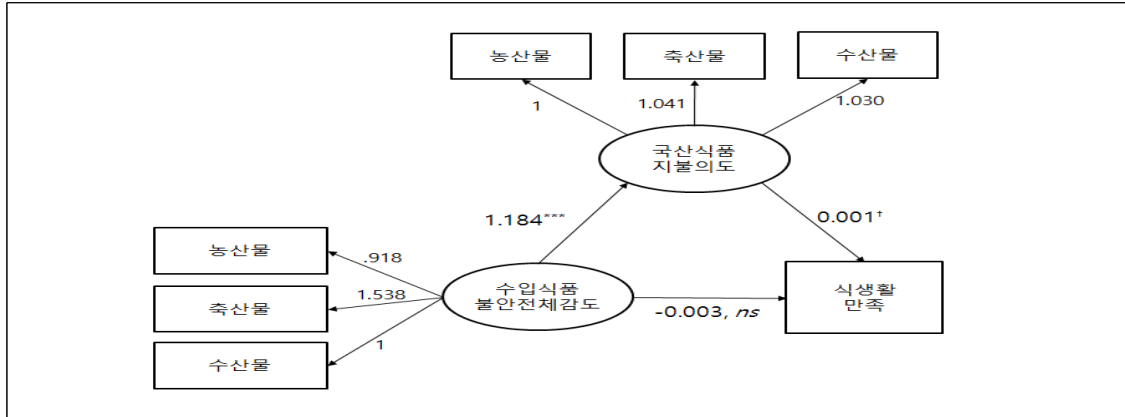
※ $\chi^2(df=50.293^{***}(8), CFI=0.998, TLI=0.995, RMSEA=0.032(0.024\sim 0.041)$

*** $p < .001$

IV. 연구결과

1.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FI(0.094), TLI(0.097), RMSEA(0.032) 등 적합도 지수가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아래 <그림 1> 참조). 가설 검증 결과,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는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에(B=1.184, $p < .001$), 그리고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는 식생활 만족도에(B=0.001, $p < .1$)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과 가설3은 채택되었다. 가설2는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B=-0.003). 이에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는 수입식품 불안전인식과 식생활 만족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3> 참조).



※ $\chi^2(df)=79.648^{***}$ (12), CFI=0.994, TLI=0.997, RMSEA=0.033(0.026~0.040)

† $p < .1$, *** $p < .001$

<그림 1> 연구모형

<표 3> 수입식품 불안전 인식이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정

경로	B	SE	CR	β	검정결과
H1. 수입식품 불안전인식 →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	1.184	0.298	3.980***	0.061	채택
H2. 수입식품 불안전인식 → 식생활 만족도	-0.003	0.007	-0.487	-0.007	기각
H3.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 → 식생활 만족도	0.001	0.001	1.814†	0.026	채택

† $p < .1$, *** $p < .001$

다음으로 연령대와 성별, 월평균 가계소득, 최종학력이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 →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 경로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관련된 모든 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연령대와 성별, 가계소득과 최종학력은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가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아래 <표 4> 참조).

<표 4>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 →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에 대한 소비자 사회인구적 특성의 조절효과 검정

구분	연령대 <H4-1: 기각>		성별 <H5-1: 기각>		월평균 가계소득 <H6-1: 기각>		최종학력 <H7-1: 기각>	
	50대이상	40대이하	남	녀	400만이상	400만미만	대졸이상	고졸이하
B	1.049**	1.399**	1.227**	1.168**	1.405**	1.121*	2.015**	0.856**
(SE)	(0.380)	(0.472)	(0.460)	(0.389)	(0.575)	(0.349)	(0.671)	(0.312)
β	0.057	0.069	0.063	0.061	0.076	0.057	0.083	0.051
Free 모형 $\chi^2(df)$	88.427(24)***		98.144(24)***		91.941(24)***		113.932(24)***	
제약 모형 $\chi^2(df)$	88.748(25)***		98.153(25)***		92.117(25)***		116.346(25)***	
$\Delta\chi^2(\Delta df)$	0.321(1)		0.009(1)		0.176(1)		2.414(1)	

* $p < .05$, ** $p < .01$, *** $p < .001$

연령대와 성별, 월평균 가계소득, 최종학력이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 → 식생활 만족도 경로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연령대의 조절효과만 $p < .01$ 에서 유의하여 가설4-2는 채택되었다.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가 식생활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40대 이하의 저연령층은 해당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다른 변수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5-2와 가설6-2, 가설7-2는 기각되었다. 남성과 여성, 대졸이상과 고졸이하 집단 모두에게서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단, 월평균 가계소득이 400만 원 이하인 집단은 400만 원 이상인 집단과 달리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가 식생활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아래 <표 5> 참조).

<표 5>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 → 식생활 만족도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

구분	연령대 <H4-2: 채택>		성별 <H5-2: 기각>		월평균 가계소득 <H6-2: 기각>		최종학력 <H7-2: 기각>	
	50대이상	40대이하	남	녀	400만이상	400만미만	대졸이상	고졸이하
B	0.001***	0.000	0.001	0.000	0.000	0.001*	0.001	0.001
(SE)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β	0.063	-0.015	0.032	0.021	-0.006	0.035	0.034	0.023
Free 모형 $\chi^2(df)$	88.427(24)***		98.144(24)***		91.941(24)***		113.932(24)***	
제약 모형 $\chi^2(df)$	96.012(25)***		98.272(25)***		93.185(25)***		113.948(25)***	
$\Delta\chi^2(\Delta df)$	7.585(1)**		0.128(1)		1.244(1)		0.016(1)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본 연구는 소비자의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와 식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소비자의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해당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 검정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위해를 체감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n=5194)를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결과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는 농수축산물 모든 유형에서 높았고, 특히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안전체감도가 높았다. 또한,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는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높다고 제시한 대다수의 선행연구와 일관되고, 불안정한 수입식품에 대응하는 안전추구행동으로 국산식품 구매행동을 취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관된다(김규동·이정운, 2010; 대한상공회의소, 2013; 최세현 외, 2011). 따라서 수입식품의 위해요인 관리 등 안전성 확보를 위

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 높은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고가의 국산식품 선택으로 귀결되는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로 인한 국산식품의 추가 지불의도에 주목하였는데, 그 결과, 소비자가 수입식품의 불안전성 때문에 국산식품을 선택함에 있어 추가 지불을 할 의도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수입식품의 객관적인 품질문제나 위해요인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의 주관적인 불안전체감도로 인하여 국산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만약, 국산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고가의 국산식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과 구매 실패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와 함께 원산지 효과의 후광에 힘입어 고가의 가격전략을 구사하는 국산식품 사업자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도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산이라는 원산지 정보 이외에 품질평가를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보 제공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 →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에 대한 소비자 사회인구적 특성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연령대와 성별, 소득, 학력수준 차원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른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차이를 보고한 선행연구(임교석 외, 2008; 장민선, 2009; 한재환·정학균, 2014; Taylor, *et. al.*, 2012)와 상이한 연구결과이고, 소비자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한 일부 연구(진현정 외, 2014)와 일관된다. 특히, 모든 연령대와 성별, 소득수준, 학력수준 소비자 집단에서 모두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 →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의 경로계수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국산이라는 원산지에 대한 전 계층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며, 이는 수입식품의 높은 불안전체감도를 반증한다. 따라서 수입식품 사업자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연령이나 성별, 소득,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임을 명심하고, 자사 제품의 안전성 관리 과정과 결과를 소비자 전 계층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가 감정적 차원인 만큼 부정적 감정상황에 대해서는 정보적 소구가 효과적이므로(양윤, 2014),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한 제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이 모든 소비자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는 식생활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는 식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아 소비자가 느끼는 우려와 불안으로 인해 전체 식생활 만족도가 직접적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국산식품 구입을 통해 식생활 전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즉,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는 수입식품 안전체감도와 식생활 만족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수입식품의 안전성에는 불안과 우려가 크지만, 수입식품 선택을 거부하거나 혹은 수입식품의 저렴한 가격 등에 만족하여 결과적으로 식생활 만족도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는 높음에 비하여 식생활 만족도 수준은 3.5점(5점 만점)으로 높았다. 이에 소비자가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식생활 만족도가 낮아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의 분

석이 필요하고, 수입식품의 불안전성이 수입식품의 어떠한 혜택으로 상쇄되어 식생활 만족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실증적 확인도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 → 식생활 만족도의 경로계수가 0.001(표준화 경로계수 = 0.026)로 매우 낮고, 유의성 검정 수준도 $p < .1$ 로 엄격하지 않았다. 더욱이 소비자의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50대 이상과 월평균 가계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소비자 집단에 한하여 해당 경로계수가 유의할 뿐,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수의 소비자는 국산식품을 추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구입한다고 해도 전체 식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고가의 국산식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을 지지하는 또 다른 시사점이다. 즉, 소비자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고가의 국산식품을 구매하게 되지만, 이로 인한 식생활 만족 증가분은 매우 미미하거나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식품보다 고가인 국산식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하였다더라도 국산식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에서의 혜택이 많아 식생활 만족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도록 업계와 관련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산식품 사업자는 국산이라는 원산지에 의존하여 고가의 가격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40대 이하 젊은 소비자에게는 만족도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품질개선이나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와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뿐 아니라,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검증함으로써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의 영향력을 구매의사결정과정 전체에 적용하였다는 학문적·실용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국산식품 구매 행동을 추가 지불의도로 측정함으로써 실제 시장상황을 반영한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국산식품 선택 이후의 단계로 식생활 만족도를 선택함으로써 소비자 행동 이후의 단계에 대한 논의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 중, 70대 이상의 고연령층과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의 비중이 높아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식생활 만족도가 국산식품 선택 후 식생활 만족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정확한 결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시도하여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으로 인한 국산식품 선택이 선택 이후의 식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성숙. 2007.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15-32.
- 남희정, 김영순. 2006. 일부 수도권 거주 주민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9(2): 126-142.

- 류미현, 이승신. 2013. 국가이미지가 수입식품안전인식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6(4): 103-127.
- 대한상공회의소. 2013.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 서경미. 2008. 한국산 식품의 품질적 특성과 국가 이미지가 식품 신뢰도 및 원산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소비자시민모임. 2012. 수입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식조사 결과.
- 송보경, 이은영, 김건희, 박기환. 2012.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2012년 소비자 분야 통합학술대회 발표집. 185-190.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수입식품안전관리 수출국 현지 중심으로 대전환. *정책뉴스*. 2015. 1. 12.
- 양윤. 2014. 소비자심리학 2판. 서울: 학지사.
- 유명순, 주영기. 2013. 수입식품 위험인식 및 구매의사 연구: 휴리스틱 성향, 자기효능감, 뉴스미디어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6): 211-233.
- 유현정, 주소현. 2014.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과 식품안전 역량 비교 연구. *한국위기 관리논집*. 10(10): 19-43.
- 유현정 ·, 주소현. 2012. 소비자의 식품안전지향행동의 구조모형 분석. 2012 소비자 분야 통합학술대회 발표집. 260-267.
- 이용학, 최광수, 나준희. 2012. 국산 농산물의 브랜드 충성도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30(3): 43-50.
- 이원준, 이태민. 2013. 수입 농식품 소비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수입 과일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 연구*. 44(2): 1-26.
- 임교석, 이용학, 박성용. 2008. 국산미 및 수입미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상품학연구*. 26(3): 15-24.
- 장민선, 강은진, 조미영, 최계선, 홍영표, 서갑중, 김건희. 2009.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8(11). 1625-1632.
- 전상민, 최은실. 2014. 리콜의 자발성 여부와 공개 방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구매의도: 제품 유형과 소비자 사회인구적 특성의 상호작용효과. *한국위기관리논집*. 10(10): 243-263.
- 전영호. 2009. 육류원산지의 국가이미지가 품질지각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연구저널*. 23(3): 361-382.
- 진현정, 임지연, 이계임. 2014. 소비자의 식품안전체감도 측정과 영향 요인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45(2): 1-21.
- 최세현, 김은순, 이현주, 조재환 .2011.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원료 콩의 원산지 인가 친환경인가. *농업과학연구*, 38(2): 361-368.
- 최정숙, 전혜경, 황대용, 남희정. 2005. 주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성 우려의 관련 요인. *한국*

- 식품영양과학회지. 34(1). 66-74.
- 통계청. 2014. 2014 사회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그 체감도에 따른 행동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보고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9. 소비자인식 분석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행정체계 연구.
- 한재환, 정학균. 2014. 수입산 유기농산물 구입의향 요인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22(1): 67-80.
- 한태학. 1998. 사회적 구성으로서 위험: 위험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위험인지와 그 수용에 관한 연구. 사회조사연구. 13(1): 135-148.
- Bawa, A. 2004. Consumer Ethnocentrism: CET-scale Validation and Measurement of Extent. *The Journal for Decision Maker*. 29(3): 43-57.
- Bilkey, W. J. and e. Nes. 1992. Country of Origin Effects on Product Evalu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3(1), 89-99.
- Chuenpagde, R., L. Liguori, D. Preikshot, and D. Pauly. 2006. A Public Sentiment index for Ecosystem Management. *Ecosystems*. 9(3): 463-473.
- Curtain, R. T. 1973. Index Construction: An Appraisal of the Index of Consumer Sentiment. In L. Mandell, G. Katona, J. N. Moran and J. Schmidedskamp, eds, *Survey of Consumers: 1971-72*. Ann Arbor MI: Institute of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253-261.
- Dosman, D. M., W. L. Admowics, and S. E. Hrudey. 2001. Socioeconomics Determinants of Health and Food Safety Related Risk Perceptions. *Risk Analysis*. 21(2): 317-318.
- Gaski, J. F. and M. J. Etzel. 1986. The Index of Consumer Sentiment toward Markeing. *Journal of Marketing*. 50(3): 71-81.
- Han C. M. and V. Terpstra. 1988. Country-of-origin Effects for Uni-national and Bi-national Produc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Summer): 235-255.
- Hong, S. and R. S. Wyer. 1990. Effect of Country of Origin and Product Attribute Information of Product Evaluation: A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6(2): 175-187.
- Huber, J. and Cann, M. C. 1982. The Impact of International Beliefs on Product Evalua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Aug: 324-333.
- Jn, H. J. 2008. Changes in South Korean Consumers' Preferences for Meat. *Food Policy*. 33(1): 74-84.
- Kinsey, J., R. W.Harrison, D. Degeneffe, G. Ferreira, and S. Shiratori. 2009. Index of Consumer Confidence in the Safety of the United States Food System. *American Journal of*

- Agricultural Economics*. 91(5): 1470-1476.
- Scholer, R. D. 1965. Product Bias in the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November): 394-397.
- Shim, S., S. Seo, Y. Lee, G. Moon, M. Kim, and J. Park. 2011. Consumers' Knowledge and Safety Perception of Food Additives: Evaluation on the Effectiveness of Transmitting Information on Preservatives. *Food Controls*. 22: 1054-1060.
- Smith, D. and P. C. Riethmuller. 2000. Consumer concern about food safety in Australia and Japan. *British Food Journal*. 102(11). 838-855.
- Taylor, A. W., J. Conveney, P. R. Ward, E. Dal Grande, L. Mamerow, J. Henderson, and S. B. Meyer. 2012. The Australian Food and Trust Survey: Demographic Indicators Associated with Food Safety and Quality Concerns. *Food Control*. 25: 476-483.
- Wang, H. H., X. Zhang, D. L. Ortega, and N. J. Olynk. 2013. Information on Food Safety, Consumer Preference and Behavior: The Case of Seafood in the US. *Food Control*. 33: 293-300.
- Worsley, A. and V. Scott. 2000. Consumers' Concerns about Food and Health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Asia Pacific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9(1): 24-32.

전상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주요 논문으로는 “리콜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행태: 기업의 규모와 업종별 차이 분석(2014)”, “건강관련 식품표시가 구매 전 품질평가와 제품 사용 및 구매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계획적 행동이론을 바탕으로(2012)”, “Health Claims Regulations: Voices from Korean Consumers and Experts(2012)”, “외식업체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이용 현황 및 욕구 분석(2009)”, “가공식품의 소비자기향적 건강강조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2008)” 등이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식품 소비자의 안전과 행태, 심리 및 만족 등이다(smjun@hoseo.edu).